



사전진단 예방이 최고 !

화재신고가 들어왔다.

“어보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침착하시고 어딴니까?”

“에 △△아파트입니다.”

“무슨동인데요...” 그렇게 이어지고 1분이 넘어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고 출동이 제대로 어어졌다.

위치는 방화동 △△아파트 ○동 4층 ○호.

이 사건은 87년도 파출소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를 진화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20여분쯤 진화활동을 했는데 공기호흡기에서 신호가 왔다.

“삐삐삐...”

공기가 떨어져가니 빨리 나가라는(탈출) 신호였다.

뒤에 들어온 대원한테 관창을 인계하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실내에 가득 찬 농연으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출구를 찾아 나왔는데 현관문이 아니고 4층 베란다에서 헤매고 있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

구조·진압훈련을 받고 현장을 오가는 소방관이라도 몇 번쯤은 아찔한 순간을 겪게 된다.

우리 소방관만 해도 하루에 수십차례에 걸쳐 화재·구조·구급출동을 하는데 근래들어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을 피부로 느낀다.

신고요령, 응급처리 능력 등등.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시민들은 허겁지겁 당황속에서 방황을 한다.

최소한 막무가내로 당황은 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관련된 응급처치요령을 알아본다.

각종 재해 및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예기치 않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병원을 찾거나 119에 신고하는 것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배워 현장에서 정말로 급한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로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불구장애의 예방은 물론 전문적 치료에 도움을 주어 인명을 보호했으면 한다.

▶ 응급상황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역할

- 침착하고 재빠른 상황파악
- 사고현장의 안전관리
 - 일차 구조자가 모든 일을 처리하려는 것은 금기,
 - 피해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거나 피신시킨다.
- 환자의 부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 시작한다
- 구조를 요청한다.

1. 화재

화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 및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화재는 빠른 속도로 번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변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즉각 구조 요청을 한다.

한사람이라도 흥분하면 갑자기 주변 모든 사람이 따라서 흥분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혀야 한다. 사람이 없나 확인하고 지나는 문은 반드시 닫으면서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을 탈출한다.

◆ 연기와 유독가스가 가득찬 공간에서의 탈출

불이 났거나 독가스가 가득찬 건물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면 안되고 절대로 소방대원에게 구조를 요청한다.

불이 난 건물에 갇혀있는 상태라면 창문이 있는 방으로 가서 방문을 막고 창문을 열어서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구조를 요청한다.

연기가 가득찬 곳을 통과하는 경우 바닥에 있는 공기가 가장 깨끗하므로 자세를 아래로 낮추고 통과한다.

- 주의사항은 소방서에 연락하기 전이나 구조자가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불을 끄려고 하지말고, 환자 발생시 가연성 물질로 환자를 감싸서는 안된다.

또한 환자를 바닥에 굴리면 다른 부위까지 화상이 퍼질 가능성이 있고 다른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기사항이다.

◆ 연기·가스를 마신 경우 처치

적절한 호흡 회복과 즉시 전문구조 처치를 요청해야 한다

화상 그리고 감전

1. 응급전화로 구조를 요청한다.
2.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소생술 준비를 한다.
3. 가능하면 산소공급을 한다.

※ 주의: 연기나 가스가 가득한 방에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면 안된다.

♣ 화상과 열탕상

화상은 마른 열 외에도 부식성 물질, 마찰 등에 의해 발생하고 열탕상은 뜨거운 액체나 증기 같은 젖은 열에 의해 발생한다.

화상은 극저온(동상)이나 태양광 같은 방사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화상의 정도를 알면 쇼크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쇼크는 화상 부위에 체액(혈장)이 흐르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순환계의 수분이 그 곳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 처치

- 환자체온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된다(저체온증).
- 화상부위에 늘어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지 않는다

(조직손상, 감염)

- 환자를 눕히고 가능한 화상부위가 닿지않게 한다.
- 찬물을 충분히 화상부위에 붓는다.
- 화상부위를 식히면서 숨길과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생술을 실시한다.
- 반지나 시계, 허리띠 또는 화상부위를 조이는 옷 같은 것들을 조심스럽게 풀어준다.
- 화상부위를 소독된 화상포나 다른 적당한 것으로 덮는다.
 - 얼굴 화상은 덮지 않고 물로 계속 식혀서 통증을 해소시킨다.
- 구급차가 오는것을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 쇼크 처치를 한다.
 - 필요시 소생술을 실시한다.

◆ 입과 목안의 화상

- 숨길이 빠르고 붓고 염증이 일어나므로 고도로 숙련된 응급처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

※ 주의: 손상부위를 만지거나 건드리지 말 것.

어떤 수포도 터뜨리지 말 것.

손상 부위에 로션, 연고, 기름 등을 바르지 말 것.

2. 전기손상(감전)

화재의 원인중 40%이상이 누전, 합선, 감전, 전기에 의한 화재로 나타난다. 그중 마스크를 통해 접해보는 감전 사고와 조치법을 알아본다.

♣ 고압전류의 손상

대부분 치명적인 손상이다. 전기가 중단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부상자에게 접근해서는 안되며 특히 주위 사람들을 현장으로부터 18m이상 먼 곳에서 접근치 못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전기손상은 심한 화상이 동반되며 갑작스런 심한 근육의 수축은 부상자를 상당한 거리까지 밀어내며, 마른 나무나 의복이 고압전류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자 구조전에 반드시 전류를 중단해야 한다.

♣ 저압전류의 손상

가정, 회사, 상점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전류도 심한 손상과 사망까지 유발시킨다.

특히 어린이는 더욱 위험하다. 물은 매우 위험한 전도체이므로 전기를 사용할 때는 물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 감전사고시 조치

- 가능한 한 스위치를 끄거나 전기 프러그를 빼 전류를 중단시킨다.
- 부상자의 몸에 손을 대면 매우 위험하다. 낡은 전선이 감전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인데 감전시 나무 빗자루 등 비전도체로 격리시킨다.
- 전류를 차단하기 어려울 때는 나무박스나 두꺼운 신문지 등을 이용해 부상자의 감전 부위를 전선으로부터 분리한다.

무슨 사고이든 사전에 예방되어야 하며 의료사고 시 안전하게 병원으로 빨리 이송되어 전문 의사의 진료가 제일 중요하다 [Z]

지 명 천 (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